



OPEC 5% 감산합의와 향후유가전망

- 대한석유회 협회 홍보실 -

이번 걸프전쟁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은 뭐니 뭐니해도 유가의 안정이라 하겠다. 전쟁중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니 유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고 있다.

전쟁중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전쟁후에는 떨어진다고 예측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원유가격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국제석유시장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변수가 서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가의 요체요 속성이다.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지난 3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회의에서 올 2/4분기중 산유량을 현수준에서 1백만B/D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OPEC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OPEC가 산유량을 현수준에서 5% 감축하는데 합의는 했지만,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18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OPEC는 현재 하루에 2천3백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1백만 B/D를 감산해도 여전히 공급과잉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OPEC가 원하는 기준유가 21달러를 유지하려면 산유량은 하루 2천50만배럴에서 2천1백만배럴까지 줄여야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5%의 감산합의는 현재의 유가인 배럴당 17달러에서 1달러 정도 오른 정도의 효과 밖에 얻을 수 없다. 당분간은 심리적 효과로 배럴당 1~2달러 정도 상승하겠지만, 4월부터 석유비수기로 접어들고 베네수엘라등 일부 산유국들이 여전히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올해 평균유가는 배럴당 20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꾸준히 늘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22달러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석유수출을 재개할 때는 OPEC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과 소련의 석유공급증대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英國·노르웨이가 OPEC조치에 발맞추어 물량 줄이기 전략으로 北海유전정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제유가의 폭락현상은 없을 것이다. 또 이라크의 경우 석유생산시설의 80%가 파괴돼 하루 60만배럴 생산에 그쳐 국내소비에 급급할 수 밖에 없고 쿠웨이트도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석유를 내놓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는 것도 유가폭락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석유소비가 2백만~3백만 B/D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까지 유가는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연말에는 석유소비가 늘겠지만 이라크 석유수출이 일부 재개되고 외채에 시달리는 멕시코등 非OPEC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 국제유가의 향방은 OPEC의 결속도 중요하고 쿠웨이트나 이라크의 석유생산 재개도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더 큰 변수는 美國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가에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美國은 이번 걸프전쟁을 통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나라의 산유량은 OPEC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만 원하면 유가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과연 美國이 유가폭락을 원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美國은 현재 국내석유수요의 약 5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련 다음가는 세계 최대산유국의 하나다. 따라서 美國은 유가가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美國이 원하는 것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적당한 선에서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2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는 OPEC 외에도 美國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